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 를 다시 본다

김연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상한 전염병이 미국 전역을 덮치고 있다. 기술과 글로벌화가 무한한 번영을 약속하는 동시에, 이제까지의 경제 법칙을 무색케 한다는 믿음이 미국의 경영자, 투자자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시사 잡지에서는 연일 새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의 유력자들도 이를 찬양하고 심지어 중앙은행 총재조차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사고를 열렬히 받아들이는 모습은 사회학적 현상으로서 하나의 구경거리가 될 수는 있다. 미국인들은 거대한 신이념을 좋아한다. 특히, 전통적인 경제학 논리를 의심하기 좋아하는 그들은 특히 이런 류의 생각에 쉽게 젖어든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보다 훨씬 더 대외 개방적이고 정보통신망도 비슷한 수준을 자랑하는 영국 같은 나라가 이자율을 올리고 있는 이때

에, 왜 유독 미국에서만 소위 '신경제(New Economy)' 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묻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도 미국만의 고립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유별난 이념은 위험을 수반한다. 그런데도 이 사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매우 적다.

'신경제' 에 대한 믿음이 이토록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는 '신경제' 의 몇몇 요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분명 수출입이 담당하는 역할은 한 세대 이전보다 커졌고, 정보 기술은 미국의 경제적 산출물들의 성격과 기업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모든 것이 갑자기 변했다고 굳게 믿는 이들의 열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보다 더 그럴듯한 이유는 전통적인 경제 모델들이 미국의 놀라운 경제 성과를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지난 18 개월 동안 GDP는 연평균으로 3.6%의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와 양립 가능하다고 여겨져왔던 수준보다 훨씬 빠른 속도이다. 실업은 30 년만에 처음으로 4.9%까지 하락했는데, 이 역시 주류 경제학자들이 물가에 압력을 가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밑도는 것이다. 게다가 인플레이 수준은 낮을 뿐만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신경제' 패러다임은 겉보기에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한다. 컴퓨터와 글로벌화가 생산성 증가를 가속화해서 이윤 증대·임금 상승·물가 하락을 동시에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구식 통계치들로는 전혀 포착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야 어떻든간에 '신경제' 개념은 강한 호소력을 내재하고 있다. '신경제'는 90년대 초에 있었던 비용 절감과 기업의 사업 재구조가 항구적인 생산성 향상을 낳았음을 시사함으로써 경영진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현재의 주식 시장 가치를 정당화하는 장미빛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기도 하다. 모든 정파의 정치인들도 '신경제'를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는 '신경제'가 재정 건전화와 무역 개방에 힘입은 바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은 과거 정책의 성과가 이제야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회합동경제위원회 의장인 공화당의 짐 색스턴에 따르면, '신경제'는 80년대 레이건 재임 당시 실시된 소득세율 인하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한다.

한때의 유행들이 다 그렇듯이 '신경제'도 과대 포장에 둘러싸여 있다. 기술과 세계화로 윤색된 장미빛 미래를 그린 *Wired*誌 7월호의 기사 한 편이 월스트리트에 파란을 일으켰던 것도 바로 이때문이었다. 연방준비위원회의 앨런 그린스팬 의장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린스팬은 최근 의회 출석의 거의 절반을 기술 변화에 대한 증언에 할애했다. 그는 최근 상황이 생산성 트렌드를 새롭게 한 단계 올릴 만큼 일세기에 한두 번 있을 법한 현상인지 의구심을 표명했다. 똑같은 증언에서 그는

노동 시장의 최근 성과는 경제가 불안정한 진로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많은 투자자들의 눈에는 그린스팬이 유행에 휩쓸려 다니는 것으로 비쳐졌다.

소위 '새 패러다임(New Paradigm)'에는 이론에 근거한 추측부터 말도 안되는 얘기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온건한 '새 패러다임'에 따르면, 인플레이를 동반하지 않은 장기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경제에 속도 제한이 있다는 점도, 그리고 최근 (실업률 하락을 동반한) 경제 성장률이 제한 속도를 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온건파들은 성장, 실업 그리고 인플레이 사이의 관계를 인정한다. 이들은 다만 그 관계가 변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린스팬이 9월 5일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런 시각의 연장선 상에서 볼 때 통화 정책은 보다 분별과 기교의 문제가 되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경제'를 믿는 사람들은 훨씬 느긋해 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항구적인 상승 가도에 올랐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경제

성장, 실업 그리고 인플레이간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이들은 심지어 컴퓨터와 국제적인 경제 개방의 영향으로 인플레이가 잡히고 경기 순환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 경제학자들이 최근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Harvard Business Review* 최신호에 실린 논문에서 폴 크루그먼 MIT 교수는 '신경제' 사고의 개념적·실증적 근거를 공격하고 있다. 앨런 블라인더 前연방준비위원회 부의장 역시 진보적 학술지인 *American Prospect*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크루그먼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쟁으로 一國이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이 오를 수는 없다는 점이다. 一國의 성장률은 여전히 노동력과 생산성 향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제는 이미 공식 데이터가 가리키는 것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생산성 증가가 현재 잘못 측정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정이 그럴지라도 인플레이를 재촉받지 않고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경제' 사고의 인기는 가실

줄을 모르고 있다. 사실, 많은 '신경제' 론자들은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스칸디아생명보험의 연구위원 로렌스 커드로우는 고집불통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변화하는 세계가 그들의 이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꼬집고 있다.

주류 경제학과 대중적이기는 하나 단순한 경제학적 시각간의 이러한 불협 화음은 미국에서 전에도 있어왔다. 80년대 커드로우를 주축으로 하는 '공급경제학자' 들의 부상과 함께 세금 감면이 이득이라는 주장이 득세한 적이 있다. 그때도 지금처럼 주류 경제학자들은 '예언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었다. 그때 공공 정책은 재앙을 몰고왔다. 시장 지향적인 경제 개혁이 빠른 경제 성장과 높은 수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외국인 자본이 멕시코와 같은 신흥 시장에 몰려들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믿음이 90년대 초에도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또 다시 그 이야기는 불행으로 끝을 맺었다.

'신경제' 에 관한 사고가 전혀 황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기 순환이 멈춰버렸다는 증거는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새 패러다임' 을 받아들여려는 미국의 열망이 바라지 않던 결과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 투기적인 증권 시장의 거품, 이자율을 올릴지 말지 망설임, 세금을 감면해 주려는 과욕, 몇년간의 경제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의료 및 사회보장 개혁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 등, 경제 문제에 관한 지나친 낙관주의는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다. 

(Source: *The Economist*, September 13, 1997)